



さいたま暮らしの情報誌

埼玉県生活情報期刊
사이타마 생활 정보지

NO.73(SEP.2020)

こんなときは・・・すぐに119番へ
遇到这样的情况・・・马上拨打119叫救护车
이럴 때는・・・빨리 119에

救急車をよびたい！でも日本語が話せないわ。どうしよう
中文・・・
응급차를 부르고 싶어요. 근데 일본어를 못 하는데 어떡하죠?

呼びかけても反応がない

· 불러도 반응이 없다.

普通にしゃべれない、声がでない

· 말을 못 하고, 목소리가 안 나온다.



普段通りの呼吸をしていない
息がない

· 평소대로 호흡하지 않는다.
숨을 안 쉰다.

顔色、くちびる、耳の色が悪い。冷や汗をかいている

· 얼굴색, 입술, 귀의 색이 나쁘다.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.

【発行元】

公益社団法人さいたま観光国際協会 (STIB) 国際交流センター

【발행원】

공익사단법인 사이타마 관광국제협회 (STIB) 국제교류센터

【장소】

사이타마시 우라와구 히가시타카사고초 11-1 코무나레 9층

【发行方】

公益社団法人埼玉観光国際協会 (STIB) 国際交流中心

【地址】

埼玉市浦和区東高砂町 11-1 Comunale 9楼 (JR浦和站东口 PARCO 商厦楼上)

TEL : 048-813-8500 FAX : 048-887-1505 E-mail : iec@stib.jp URL : https://www.stib.jp/kokusai

急に具合が悪くなったときは／急症伤病／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을 때

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지거나 크게 다쳤을 때는 구급차를 부릅니다. 근처에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119 에 신고 전화를 걸어 달라고 합니다. 평소에 이웃의 일본인이나 일본어를 아는 친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응급차를 부르는 방법

- ① 119 번에 전화합니다.
핸드폰으로도 연결이 됩니다.
- ② '응급입니다' 라고 합니다.
- ③ 아픈 사람 (다친 사람) 이 있는 곳의 주소 또는 표시되는 것을 말합니다.
- ④ 아픈 사람(다친 사람)의 상태를 말합니다. '가슴이 아픉니다.' '다쳤습니다.' '사고입니다.' 등
- ⑤ 당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합니다.

응급차로 병원에 데려다줌 (무료)
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(유료)

응급차가 올 때까지 준비해 두면 편리.

- 건강보험증 · 진료권 · 현금 · 신발
- 어린이일 경우는 「육아 지원 의료비의 수급 자격증」

갑작스러운 병이나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할지, 병원에 간다면 어디에 가면 좋을지, 응급차를 부르는 게 좋을지, 판단이 망설여질 때는 #7119 응급전화상담을 이용합니다. (일본어만)



사이타마 시내에서 외국어에 의한 119 번 신고 (전화) 는 24시간 365일 무료로 동시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